

현대부르조아《런대경제체제론》에서 설교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에 대한 궤변과 그 반동성

류 정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예속경제로 전락되었으며 그자체가 안고있는 구조적취약성으로 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속에서 파산과 몰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어용경제학자들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피뢰패당의 매국배족적인 책동을 합리화하고 변호할 목적으로 서방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반동적인 경제리론들을 모방하여 많은 부르조아경제리론들을 조작류포시키고있다. 그 대표적인 리론들중의 하나가 바로 최근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런대경제체제론》이다.

《런대경제체제론》은 자유경쟁을 찬양하면서도 《자유방임》을 부인하고 부르조아국가의 경제적간섭을 옹호하여나섰던 서부도이칠란드 《신자유주의론》의 현대적변종에 불과하다. 《런대경제체제론》은 본질에 있어서 지난 시기 독점자본가계급의 리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였던 서부도이칠란드 《신자유주의론》과 같으며 달라진것이 있다면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부인한다는데 있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계급철폐》밑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랑립》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낼것을 주장하는 《런대경제체제론》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여기서 《런대》라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들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호상 《협력》을 주장하는 기만적인 표현이다. 인간의 《런대》를 위하여 자본주의사회에 범람하는 현재의 주식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매체》(국가가 발행하는 주식)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마치도 자본주의사회를 그대로 두고도 인류의 리상사회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이 반동적인 《런대경제체제론》의 기본내용이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자유》와 《평등》이 다 보장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방도로 현재의 주식이 아닌 《새로운 가치매체》를 만들어 그것을 관리하는 《런대부문》을 설립하면 현존하는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도 공황이 없고 분배에서의 평등을 실현할수 있는것처럼 설교하였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은 저들이 설교하는 《런대경제체제》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새로운 체제》로 되는듯이 묘사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수립하자면 그 전제로서 《새로운 경제체제》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에 대한 궤변을 조작하였다.

그들은 《경제체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였다. ...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사고방식의 굴은 관념에서 벗어나 소유와 화폐와 시장 그리고 분배와 권력 등을 런대의 매개양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떠벌이였다.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대립의 기초인 소유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는척 하면서 그것을 《개량》하기만 하면 마치도 계급들간에 투쟁이 아니라 호상

《협력》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실현될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반동적인 견해이다.

《현대경제체제론》자들은 저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체제》가 이미전에 유럽의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된것으로서 마치 그것이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인것처럼 설교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에 대한 궤변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현대부르조아《현대경제체제론》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은 이미전에 유럽의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은 우선 자본주의와 같이 모든것을 시장화하는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 《토지와 노동, 화폐시장을 배제하는것이 인간을 화폐로부터 구원하고 사회를 시장으로부터 구제하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모든것이 상품으로 매매되는것이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 그들의 주장은 자본주의체도를 그대로 두고서도 그 어떤 조건을 마련하기만 하면 마치도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을 개선할수 있는듯 한 환상을 조성하는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설교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자본가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을 위한 그 어떤 조건의 개선이란 있을수 없다.

토지와 노동, 화폐시장을 배제할데 대한 그들의 주장은 화폐자본이 지배하던 산업자본주의시기 어떻게 하나 화폐를 없앴으로써 자기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해보려고 하였던 소부르조아지들의 경제리론의 재판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화폐나 주식을 없앨수 없으며 따라서 화폐시장을 배제할데 대한 주장은 《새로운 가치매체》의 출현을 암시하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견해로 된다.

유럽의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은 또한 노동자집단이 경영과 관리의 주체가 될것을 주장한 《노동자자주관리시장경제》는 국가권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경제적평등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리론적시도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노동자에게 리윤을 분배하고 남은것을 금융기관에 배속시킴으로써 소유소득을 배제하며 기업의 경영권을 노동자집단에 귀속시켜 자률적인 기업을 단위로 시장경제를 형성》하여야 한다는것을 설교하였다.

노동자에게 차례지는것은 리윤이 아니라 그가 지출한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자본가계급이 착취하는 전체 량에 비해볼 때 보잘것이 없는 최소한의 생존비이다. 형식상이나마 기업의 경영권을 노동자집단에 넘겨 그들스스로가 기업을 운영하게 한다는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더욱더 교활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내는 불로소득자, 금리생활자인 대자본가계급을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정치경제적기초로 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에서 그들이 주장한 《노동자자주관리시장경제》는 독점자본가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철저히 배치되는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유럽의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설교는 소유소득과 시장의 재구성으로 《자유》와 《평등》을 《량립》시킬것을 주장하는 《현대경제체제론》에 리론적기초를 제공하는 기만적이고 공상적인 설교이다.

유럽의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은 또한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주식이라는 《가치매체》에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구상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경제문제에서는 규모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소유에서 중소기업

을 제외한 일정한 규모이상의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의 50%를 항상 공공기관이 소유하도록 하는 개혁은 대단히 용이하면서 동시에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여기에서 기업주식의 절반을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아닌 <사회평의회>라는 기관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당정치의 다툼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관리에게 위임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설교하였다.

중소규모의 기업을 제외한 대규모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를 정부와 정당의 통제가 없는 <사회평의회>라는 공공기관에 소속시킬데 대한 그들의 설교는 최대한의 리운을 목적으로 경영활동이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허황하고 반동적인 설교이다. 어떻게 하나 더 많은 독점적고물리운을 추구하는 대금융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발행주식의 절반을 그 어떤 공공기관에 넘긴다는것은 전혀 생각할수 없는 일이며 자본주의제도에서 그 어떤 방식을 통한 <개혁>의 결과도 자본주의적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될수 없다.

기업주식의 절반을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사회평의회>라는 기관의 설립에 대한 그들의 설교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관리운영하는 <련대부문>의 설립을 주장한 <련대경제체제론>의 이론적기초로 되는 허황하고 반동적인 설교이다.

현대부르조아<련대경제체제론>자들은 다음으로 <새로운 경제체제>의 설립을 시도한 유럽의 일부 경제학자들의 리론들에 근거하여 저들의 궤변을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에 관한 선행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볼 때 그 <새로운 경제체제>는 첫째로, <경제적자유를 보장할수 있는 시장체제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것이며 둘째로, <정의와 평등 그리고 련대를 위해서는 리운과 소유소득을 공공화하고 자산시장(화폐시장)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두가지 문제로 정립된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첫째 문제는 경제행위의 동기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 문제는 시장을 <지양>하는 문제이며 이 두 문제는 다같이 하나의 문제 즉 <가치매체>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하면서 <주식이라는 가치매체는 기만적이다. 자본주의는 세련되지 못한 련대양식이다. 근대산업사회에서는 화폐만으로 충분하였을지 모르나 현대의 세계화되고 지식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체제양식은 불안정한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체제에 대한 접근은 자본주의의 화폐와 주식이라는 <가치매체를 개혁하고 원시적가치매체에 의한 시장적통합양식을 정보통신에 의한 통합양식으로 지양하는것이다.》라고 설교하였다.

<련대경제체제>자들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에 대한 이러한 설교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존하는 주식과는 다른 그 어떤 <새로운 가치매체>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도 자유와 평등이 <량립>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이행할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설교이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매체>는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만들어낼수도 없으며 독점자본가계급의 리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고있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란 있을수 없다.

<련대경제체제론>자들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인민대중의 경제적자유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식인듯이 설교하면서 자본주의제도를 찬양하는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궤변이라는데 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기초하고 시장을 무대로 하여 움직이는 경제

로서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 시장은 리윤에 대한 무제한한 탐욕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되지만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시장은 죽음의 고역장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제도에 서 자본가계급은 자본을 틀어쥐고 더 많은 리윤희득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경쟁을 진행하지만 생산수단을 빼앗긴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당장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로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되며 로동력마저도 팔수 없으면 죽어야 하기때문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예측과 지배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 어떤 《새로운 경제 체제》를 고안해낸다고 하여도 그것은 철두철미 독점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위한것이지 인민대중을 위한 경제체제로 될수 없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이 마치도 자본주의가 안고있는 결함을 인정하는척 하면서 경제적자유를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하여 설교하였는데 그것은 미국식《자유》와 시장경제를 합리화하려는 반동적인 설교이다.

그것은 우선 약육강식의 강도적론리가 지배하고 최대한의 리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남조선의 예측적인 시장경제의 반동적본질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기때문이다. 실제로 남조선피뢰들이 《수출주도형경제전략》에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국내총생산액》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53%, 2005년에 70%로 계속 높아지고있으며 최근에 통용되는 《위험계선》(20%)의 4배인 80%이상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남조선경제의 무역의존도를 통하여 남조선경제가 얼마나 예측적인 시장경제로 굴러떨어졌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인민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되는 일자리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 남조선에서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가 2013년에 350만명이였다면 2014년에는 45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0만명이나 된다. 여기에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어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도 800만명에서 1 0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런대경제체제론》자들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에 대한 설교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새로운 가치매체》를 통한 《개량》의 방법으로 자본주의사회를 유지공고화할것을 주장하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궤변이라는데 있다.

그들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만들어낼수도 없는 《새로운 가치매체》라는 기만적인 도구를 가지고 사실상 자본주의제도의 청산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부인하였다.

《런대경제체제론》들이 주장한 《새로운 가치매체》의 《창조》에 대한 설교는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상품화폐관계의 발생발전에 대한 력사적분석으로 보나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로 보나 맞지 않기때문이다.

객관적경제법칙은 말그대로 그 누구의 주관적의사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매체》는 생각나면 만들어낼수도 있는것도 아니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다고 하여도 그것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설립하는데 이바지할수 없다.

그것은 또한 정보통신에 의한 통합형태를 가지고 마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는듯이 설교하였기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하여 생산력은 급속히 비약하였다. 그들은 과학기

술발전의 결과 최첨단설비와 기재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침투한것으로 하여 마치 전반적 근로인민대중의 처지가 개선되고 계급간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정보통신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자기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고 모든것을 보장받을수 있는듯이 설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설교이다.

현대제국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국가는 사독점자본의 련합체로서 대독점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할뿐이지 근로인민대중의 진정한 민주주의적의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련대경제체제론》은 최근시기에 조작류포된 반동적인 부르쵸아경제리론들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리론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련대경제체제론》을 비롯한 현대부르쵸아경제리론의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알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과 혁명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여야 할것이다.